

한강 대표작 '소년이 온다'에 커지는 오월문학 관심

5·18 최초 소설 임철우 작 '봄날' 이념적 색채 대중성 취약했지만 인간 보편적 감성 드러내며 확장

2024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 중 '소년이 온다'는 스웨덴 한림원이 심사평으로 "한강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선다"고 언급한 소설이다.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이 소설은 한강 작가의 작품세계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가운데, 단숨에 서점가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소년이 온다'로 다른 오월문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5·18을 다룬 최초의 소설은 1987년 발표된 임철우 작 '봄날'이다. 단편으로 먼저 발표된 소설은 그날 이후 살아남은 자가 죽은 자에게 갖는 죄의식을 다루고 있다. 이후 이 작품은 1997년 대하소설 '봄

날' 다섯 권으로 장편화돼 다시 발표되는데, 5·18의 배경과 경과 등 총체적 진실에 다가가며 그날의 참상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

여류소설가 윤정모의 단편 '밤길'도 1987년 발표된 5·18 소설 초기작 중 하나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무자비한 학살이 벌어지고 김 신부와 그의 수행원 요섭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 서울로 향하는 여정을 담고 있다. 동료들의 죽음을 뒤로한 채 떠나는 자의 고통과 죄의식을 그리며 소설이 담긴 작품집은 당시 판매금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1988년 발표된 홍희담의 중편소설 '깃발'은 방직공장에서 일하는 '순분'이라는 여성을 통해 계급적 노동운동의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5·18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몇 편의 중단편 소설을 더 엮어 2003년 소설집 '깃발'로 다시 발표됐다.

1988년 발표된 최윤의 중편소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는 5·18을 다룬 최초의 영화 장선우 감독의 '꽃잎'으로 만들어졌다. 5·18로 인해 정신병을 얻게 된 소녀를 통해 광주의 지독한 상흔과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성을 직시한다.

계엄군의 시각에서 쓰여진 소설도 등장했다. 정찬이 1995년 발표한 중편소설 '슬픔의 노래'는 5·18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돼 사람을 죽인 적 있는 '박운행'이라는 인물을 통해 인간의 죄의식을 다룬다. 이순원이 1993년 펴낸 소설집의 수록작 '얼굴' 또한 그저 소시민이었던 '김주호'라는 인물이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1980년 5월 광주에서 잔인한 계엄군으로 분하는 이야기다. 그는 광주에서 사람을 폭행하던 자신을 '익명의 공수부대원'으로 분리하며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끝도 없는 트라우마를 겪는다.

2000년대 이후 5·18을 주제로 한 소설

이 계속 이어졌다. 5·18 당시 시민군 수습 대책위로 활동한 '행동하는 지식인' 송기숙 교수는 2000년 '오월의 미소'를 발표했다. 이 소설은 5·18 당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가해자의 참회를 모색하고 있다. 문순태가 2000년 발표한 '그들의 새벽'은 5·18에 참여한 도시빈민을 소재로 쓴 장편 소설이다. 5·18의 주체는 이름없는 민초들이었음을 드러낸다.

이외에 공선옥도 5·18을 주제로 한 소설을 많이 썼으며 '내가 가장 예뻐했을 때' '은주의 영화' 등이 있다. KBS 드라마 '오월의 정춘(2021)'으로 만들어진 원작동화 '오월의 달리기' 또한 오월문학의 대중성을 확보한 작품이다.

'5·18과 문학적 파편들' 등을 쓴 심영의 평론가는 "오월소설은 1990년대 실체를 재현하는 르포적 형식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오월시가 1980년 당시 바로 발표되

기 시작한 것과 비교했을 때, 소설작가들이 큰 비극을 바로 구두화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5·18에 대한 실제적 진실이 어느 정도 드러나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다양한 오월소설이 쏟아져 나왔다. 한강의 작품 '소년이 온다'는 다양한 오월소설들의 밑바탕 속 탄생한 걸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오월소설은 이념적 색채로 인해 대중성이 떨어지곤 했다. '소년이 온다'를 통해 오월소설은 인간 보편적 감성 드러내며 대중성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며 "'소년이 온다'는 소설 전개에 있어 성인의 화자가 등장하지 않은 최초의 소설이다. 극이 중3 소년의 화자를 통해 전개돼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5·18의 비극이 극대화된다. 이번 한강의 수상으로 오월문학이 대중성을 확보하고 여러 세대를 거쳐 확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박아론 작 '나선형 집합(A spiral set)' **드영미술관 제공**

'물질에 대한 고찰' 박아론 기획초대전

내달 19일까지 드영미술관

드영미술관에서 박아론 기획초대전 'Non-materials in matters'전을 오는 11월 19일까지 1전시실에서 진행한다.

지난 2일 시작된 이번 전시는 올해 광주 시동구 지원사업인 청년작가 공모선정전으로 추진됐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을 위해 마련된 기획전으로 박아론 작가의 2024년 최신 설치 미술 작품들로 구성됐다.

제목에도 알 수 있듯 박아론 작가는 작

품을 통해 물질(material)과 비물질(non-material)의 관계에서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또 고도화된 현대 물질문명 속에서 물질이 지배하는 사회적 영향에 자유롭지 못한 현대인들의 삶을 투영한다.

김도영 드영미술관 관장은 "작가의 작품을 통해 물질의 방식과 형태에 따라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비물질적 역할이 다양해지고 확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와 청년작가들의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찬 기자**

제9회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 광파르

25일 국립광주과학관 발효 관련 과학 콘텐츠

국립광주과학관은 오는 25일 '발효 과학'을 주제로 성인들을 위한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한다.

9회차를 맞이하는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은 대표 과학문화 행사 중 하나로 과학관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넘어 성인들 또한 과학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 참여는 18일까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이언스 다이닝 △'발효 과학' 과학토크쇼 △'막걸리 빛기&소믈리에' 체험 △'치즈 아카데미'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발효'를 주제로 진행되는 만큼 광주·전남 제1호 향토기업인 '보해양조'의 후원을 통해 막걸리가 제공된다.

한수민 국립광주과학관 과학문화실 연구원은 "발효와 관련된 흥미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며 "참여자들이 이색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제9회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 기자**

"여우 아저씨의 이야기 창고 물품 받아가세요"

'책 먹는 여우, 도서관을 삼키다' ACC재단, 초청 전시 연계 이벤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에서 초청 전시 연계 이벤트를 진행한다.

ACC재단은 '책 먹는 여우, 도서관을 삼키다' 초청 전시 연계 이벤트를 오는 20일까지 ACC 어린이문화원 다목적 홀에서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추석 연휴 기간 어린이들이 여우 아저씨의 창고에 있는 소금, 후추, 수저세트와 물물 교환한 물품들을 관람객에게 나눠주는 행사로 여우 아저씨의 창고에 보관된 물품들은 각기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에 앞서 ACC재단은 추석 연휴기간 여우 아저씨의 핑크 소금, 후추 등을 어린이 관람객들이 가져온 물품들과 맞교환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행사 기간 관람객들은 독일에서 온 퍼즐, 민화 책 등 평소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맡기고 창고에 있는 다른 물품을 가져가는 등 지속적인 물물교환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어린이 관람객들은 '사물의 의미 있는 순환'을 이끌어냈다.

이번 물품 나눔 이벤트와 함께 전시 연계한 다양한 체험도 진행된다. 화가 미라의 스튜디오와 갤러리에서는 여우 아저씨 가면을 만들어보거나 초상화를 그려 갤러리에 전시할 수 있고 여우 아저씨가 작가가 돼 쓴 '책키 마론'의 한 장면을 가져온 수영장 코너에서는 모양이 다른 사물을 찾아

내는 놀이도 펼쳐진다.

특히 프란치스코 비어만 작가에게 가을과 관련된 사연을 보내 채택되면 새로 발간하는 '책 먹는 여우의 가을이야기' 편에 내용이 수록될 예정이다.

한편 어린이문화원은 ACC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 문화발전소로,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소재로 다양한 놀이와 체험·예술적 창작 활동을 통해 어린이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박찬 기자**



광주시립교향악단 '체임버 시리즈 VI' 공연

17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목관 앙상블·프랑스 실내악 정수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체임버 시리즈 VI' 공연이 오는 17일 오후 7시30분 광주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체임버 시리즈 VI'는 박소현 광주시향 플루티스트, 송애리 오보이스트, 주민혁 클라리네티스트, 박병준 바수니스트, 이정현 호르니스트, 이철민 피아니스트가 출연해 프랑스 작곡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한 목관 앙상블의 정수를 선사할 예정이다.

첫 무대는 '프랑세의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과 바수를 위한 목관 4중주'로



구성상 '중주' 형식이지만, 특목 튀는 목관 악기들의 음색상 '독주' 무대나 다름없는 연주가 펼쳐진다. 이어 세 개의 짧은 소품집으로 구성된 '이베르의 목관 5중주'를 위한 3개의 작품을 선보인다. 자크 이베

르가 1930년도에 작곡한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수, 호른) 목관 5중주를 위한 세 개의 소품집이다.

공연 후반에는 '드비엔드의 플루트, 바수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들려준다. 드비엔드는 뛰어난 플루트와 바수 연주자·작곡가로 명성을 날리던 음악가다. 그는 대부분 관악기를 위한 작품을 남겼으며, 작품 중 삼중주 소나타를 연주한다. 끝으로 '폴랑크의 피아노와 목관 5중주를 위한 6중주'로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실내악 편성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개성적인 선율과 독특한 음악적 유머가 잘 반영된 매력적인 작품이다.

광주시향의 '체임버 시리즈 VI'는 광주 예술의전당 누리집과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관람은 초등학교 이상부터 가능하고 입장권은 전석 1만원. **박찬 기자**